
2019년도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2019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목 차

강석진 국회의원	4
고용진 국회의원	6
권미혁 국회의원	7
김도읍 국회의원	8
김병관 국회의원	10
김선동 국회의원	11
김순례 국회의원	12
김영주 국회의원	13
김재원 국회의원	14
민경욱 국회의원	15
민홍철 국회의원	16
박대출 국회의원	17
박병석 국회의원	18
박성중 국회의원	19
박인숙 국회의원	20
박찬대 국회의원	22
송희경 의원	23
심기준 국회의원	24
심재권 국회의원	25
심재철 국회의원	26
오신환 국회의원	27
오제세 국회의원	28
위성곤 국회의원	30
유기준 국회의원	31
윤관석 국회의원	32
윤일규 국회의원	33
윤후덕 국회의원	34
이종명 국회의원	36

이종배 국회의원	37
이훈 국회의원	38
장제원 국회의원	39
정성호 국회의원	40
정인화 국회의원	41
정진석 국회의원	42
정춘숙 국회의원	43
조승래 국회의원	44
주광덕 국회의원	46
최경환 국회의원	47
추경호 국회의원	49
박명재 국회의원	50
주승용 국회의원	53
이인영 국회의원	54
김학용 국회의원	55
민병두 국회의원	56
전혜숙 국회의원	57

강석진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강석진 의원

21년 전통에 빛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게도 이번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 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산청·함양·거창·합천 군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과 관련해, 우수국회의원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NGO모니터단과 270여개 소속단체 각 분야 전문위원과 평가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대 국회 4년차 마지막 국감인 '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과 제주도를 포함해 총 43개 기관에 대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내실 있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꼬집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현안, 쟁점사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홀대 지적,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함박도 문제제기, 일자리정책 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국민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논리로 올바른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미흡한 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상은 '잘했다'는 칭찬보다 '더욱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들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라중심', '국민사랑'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270개 소속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동단장을 맡아주신 법조인, 각 단체장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대한은퇴자협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 국회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출신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야당의 '조국 몰이'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생국감·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조국 전 장관과 연결 지을 구실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정부 각 부처가 만든 정책, 진행한 사업, 사용한 예산이 바람직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비판하는, 1년에 한 번 뿐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DLF·D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초고위험 파생상품 은행 판매 제한 및 사모펀드 최소가입기준 정비 △DLF·DLS 사태 피해자에 대한 전액 배상 요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신속 추진 △불편한 대환대출 절차 개선 △전두환 자택 공매 중단 관련 환수 노력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 약관의 부당성 지적 및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 요구 △정비업체 순정부품 구매 강요, 가맹금 수취 등 한국지엠의 불공정행위 조사 요구 △네이버 자회사 유료서비스 검색 노출 갑질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매년 우수의원 선정, 국리민복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게 늘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노원갑 지역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3.

국회의원 고 용 진

권미혁 국회의원

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행정안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시민운동을 했다보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주시는 국민복상은 수상할 때마다 뜻 깊게 느껴집니다.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이끌어낸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문제라 말하기 위해 방대하고 세세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가장 우수하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짜임새 있는 공학적 질의”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춘재가 화성8차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윤모 씨에 대한 수사 부실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들을 분석해 화성 8차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인 체모감정서를 찾아냈고, 이를 윤모 씨 변호인단의 재심 준비에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 판 삼청교육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1960~70년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국가가 어린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력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입·퇴원 원아대장을 최초로 입수해 전수조사를 했고, 행안부, 경찰청, 경기도 각각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대표발의 하여,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더욱 전력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유심히 바라봐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구심점 역할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 수상소감문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우선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5대 국회말 부터 21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누비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든 감사위원을 정밀 평가해 온 공신력 있는 단체로 자유대한민국의 법질서확립과 의회민주주의 수호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주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다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및 안보 공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사건을 밝혀내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입법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재까지 230여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부울경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발의를 하는 등 입법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을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부산관 유치, 글로벌 캠퍼스타운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신항 건설, 부산연구개발특구·에코델타시티·국제 신도시 조성 및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도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은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 뜻으로 삼고 진정한 국리민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큰 상을 수여해준 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자 및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다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2. 27.

국회의원 김도읍

김병관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 선정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각 분야의 27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이자, 21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뜻하는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달라는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자료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질의와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밀접히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단순한 1회성 지적보다는, 관련 법 및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을 눈여겨 봐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정감사는 끝이 났고, 20대 국회 역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향후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2019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실효성 있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2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조국일가의 웅동학원 추가 특혜대출과 문재인 파산 관재인이 눈감아준 석연찮은 공적자금 회수절차를 집중 규명해 현 정부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되기 3일 전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과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혜택을 주는 손실보전 기한 마지막 날 추가대출 5억원의 부실채권이 매각되어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은 점을 지적하여 국정감사 기간 내내 특혜 대출 의혹을 부인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터 ‘이상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불평사항을 동문서답과 예산핑계로 일관한 규제개혁신문고의 불수용 처리된 민원을 직접 전수조사해 국무조정실에 소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지자체 민원이 신문고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분석해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을 관련분야 경력도 전혀 없는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능력 약관심사 관행화, 공정경쟁연합회와의 유착관계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 문제, 파생결합증권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의 균형,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사 특례업종 제외와 관련해서도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국리민복상은 2019 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례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저 자신이 지쳐 생각과 행동이 느슨해 질 때 NGO모니터단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과분한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수상자로 연이어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20대 국회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도전감이 서로 교차합니다만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국민민복’의 정신을 앞으로도 제가 정치하는 동안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익우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건강한 감시자로 때론 격려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더 큰 발전과 회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영주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입니다.

먼저 가장 권위있는 시민단체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저에게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을 수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열 두 번째를 맞는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체위와 관련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내는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번 국정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정부 기관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수십 여개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반면, 과도한 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비정치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짚어봤습니다.

동시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 활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또한 저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만큼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 측에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폭력 문제를 밝혀내고, 은퇴선수와 현역 선수들의 취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더욱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27.

국회의원 김영주

김재원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수상의 영광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270개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 무능, 위선, 조작 그리고 불공정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임했습니다.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애썼습니다.

특히 야당의원으로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꼼꼼히 따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격려와 질책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재원

민경욱 국회의원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민 경 욱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의원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울러 15대 국회부터 지난 20여 년 간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및 법률운동 등에 매진해온 전국 각 분야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영광으로 생각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기에 더욱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엄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늘 초심(初心)을 잊지 않고正道(正道)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나’고 묻는 제자 자공에게 경제와 국방, 국민신뢰를 뜻하는 “족병(足兵)과 족식(足食), 민신(民信)”을 들고,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민신을 꼽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도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족병과 족식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방위 활동을 통해서도 족병과 족식, 민신이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를 통해 국민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당 소속 위원들과 수시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소모적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방위비분담금, 지소미아,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능력, 함박도, 포사격 훈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병들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전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받는 베레모’, ‘돌려쓰는 전투용 안경’, ‘질 낮은 동계 패딩’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국감감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을 비롯한 피감기관들이 답변을 통해 시정을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정책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민 홍 철

박대출 국회의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진주갑 국회의원 박대출

NGO국정감사 모니터단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오다보니 어느덧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에게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여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의 남용, 오용, 제도 허점악용 등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여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

NGO 모니터단 수상 소감문

의정활동 20년 동안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10년 연속, 16번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중 최다기록입니다. 좋은 평가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기도하고 다짐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국가와 민족의 역사의 진전에 부합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회위원의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를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박 병 석(대전서갑 / 前국회부의장)

박성중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민복상 수상 소감

과방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전통과 역사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본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국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본연의 의무인 정부를 견제하고 시대에 맞는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 자리 매김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국정감사에 있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매해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더욱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여일간의 짧지 않은 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NGO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와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파 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 각 분야의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상이기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세 번째 국정감사이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이념 편향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남북관계회복이라는 이름하에 북한 측의 참여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중문화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등급 기준, 정책방향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체육분야에서는 선수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의 문제점, 경륜선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적했던 영화 등급 문제, 강원랜드의 도박중독문제, 게임물 등급 문제,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일부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약간 차질이 빚어져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막 국정감사인 만큼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보람이 크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안들이 국민의 필요에 맞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파 갑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먼저 27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참여하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격려와 신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민생과 정책 또한 놓치지 않으며 '정책 국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교육위위원으로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 관련 의혹, 조국 전 장관의 딸 관련 논란을 불러 일으킨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의혹을 질의하며,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리와 부정을 짚어내는 송곳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챙기는 포용 국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구멍에 빠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국장학재단에 저소득층 아이들 생활비 부분 지원 요구 등도 질의했습니다.

더불어 한류 열풍을 맞아 토픽시험자가 올해 38만 명에 이른 만큼 관련 부정 시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비자와 대학입시, 졸업에 쓰고 있는 토픽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국리민복상수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의원

**“경천애인(敬天愛人)자세로 국민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NGO 국정감사 국민복합선정 수상소감문_송희경 의원>

먼저 20대 국회동안 4년 연속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 선정을 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4년과 다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했던 국정감사로, 대안 있는 비판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자격 미달임에도 국책·정부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사업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해킹에 취약한 공공와이파이 보안 피해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근 조작이 난무한 포털 내 실시간검색어 순위 등 여론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SNS 기업의 국내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며 질책했고, 해외 의존도가 심각한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해 국산화를 촉구했으며, 탈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친여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진출에 대해 비판했고, 후쿠시마 오염수·북한 우라늄 폐기물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원안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동대문구 지역을 직접 발로 뛰어 성범죄에 취약한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 1인가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전사업 강화 촉구 등 민생과 보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정부 산하 연구원의 전근대적 인식을 비판해 성인지 관점 반영을 촉구했으며, 성범죄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카페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경천애인(敬天愛人)자세로 국민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남은 제20대 국회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받들고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쟁으로 얼룩진 상황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뿐 아니라 저성장 · 저출산 ·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국정감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시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주시는 상인만큼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임을 되새깁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아픔을 살피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수상소감문

심재권 의원실

□ 내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동구민 여러분들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심재철 국회의원

2019년도 국정감사 활동 내역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20회의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단발적인 폭로성 기사와 상대당 정당과 청와대에 대한 흠집내기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정부의 예산낭비와 잘못된 정책 수정, 그리고 대안정책 마련을 목표로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103건의 문제지적과 49건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보완을 위해 7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의 보완을 위해 힘썼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느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기,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용률 하락,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의 문제, 각종 정부예산의 낭비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발전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통계 자료의 오류를 지적해 즉각적인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냈고, 사회적 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의 문제점을 비판해 “조달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기재부의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방식 개혁과 내년도 업무평가 방식의 체계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그동안 지적된 정책들이 개선되어 국가운용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상임위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의 눈으로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 심재철

오신환 국회의원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하고 정밀 평가를 해주신 평가위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올 한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했으며 이와 함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뿐 아니라 늘 민생안정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제세 국회의원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 소감문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제20대 국회 4차년도 ‘국리민복상’ -

국회의원 오제세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 하면서 270개 시민 ·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은 초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시스템 확충,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연금 구조개혁,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일자리 안전문제, 공공기관의 낮은 장애인식교육 이행률과 지역장애아동센터 미설치 문제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고령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심각한 양극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과 더불어 다가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부족한 사회복지지출비중을 늘려서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향상은 국가와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복지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으며 노후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어떠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차별없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청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 · 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국회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이 큼니다.

2019년 국정감사는 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농업 및 중소기업 보호 대책 마련, ② 중소기업인 보호 및 자금지원 대책 마련, ③ 스타트업 등 창업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개선, ④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기·전력 인프라의 국민안전 강화, ⑤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 ⑥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점검, ⑥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⑦ 에너지공기업의 부채 및 도덕적 해이 문제, ⑧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 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문제, ⑩ 국정과제 이행 점검 등 10가지 세부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부 및 소관기관들의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부 및 기관들의 정책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관의 제출자료와 시민단체의 연구자료, 전문가 연구자료 및 의견,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수집하고 종합하여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많은 양의 내용을 짧은 질의시간에 소화하려다 보니 질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부여해 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현행 국감체제를 상시국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시국감을 한다는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있을 상임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력해 주신 NGO모니터단, 언론인,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수국감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여해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준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서 북핵 관련 외교·안보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도 WFP를 통해 쌀 지원을 하려고 국민의 혈세로 쌀푸대를 미리 만들었다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국감현장에서 쌀푸대 원본을 제시하며 지적하였고, 외교부가 청와대에 끌려다니며 중요 결정 사항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대북 차관의 회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부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며, 불안한 외교·안보 문제를 불식시키고 민생경제 제고와 지역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부산 서구동구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국회의원 유 기 준

윤관석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윤관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 남동구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인천 남동을 윤관석 국회의원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실시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국감, 개혁국감, 평화국감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부동산 및 교통SOC 등 민생에 대한 대안 제시에 힘썼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으로 전월세 상승폭이 미약하다는 정부 용역결과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3기신도시를 조속히 공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신도시 교통에 대해서도 광역교통시설의 장기간 미착수로 고통 받는 지역이 많다는 실증사례를 들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등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역구인 인천지역의 핵심 과제인 GTX-B노선이 A,C노선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과 인천 영종도 공항철도운임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 구간의 대안인 서창~김포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철도와 도로 모든 교통부문에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 부분의 정부 정책 중 보완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리민복상은 270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만큼 제시한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주거 문제 해결과 수도권교통혁명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윤일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민복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윤일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날카로운 심사로 국정감사 내내 함께 고생해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과,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개 단체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랜기간 의료현장을 지켜온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보건복지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를 전수조사 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다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주문했고, 보건소의 마약 관리체계 부실 문제와 일반 병·의원의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 병원 내 주사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조속히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상당액이 부정수급 등 각종 비리로 낭비되는 문제와 국민연금공단이 성과가 저조한 위탁사에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 정부가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초과지급한 양육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소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게끔 초심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나름의 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분투했습니다. 오늘 수상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그런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에 제 지역구인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습니다.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집중해야 하지만 지역으로 달려가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ASF가 확산돼 파주시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인 파주시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파주시가 부담하는 살처분 비용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관련된 법령과 시행령을 찾아보고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처분 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께 지속적으로 살처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그 비용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결국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했던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밖에도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파주시 등 ASF 피해농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당부하였고, 러시아 경협차관의 현물상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인빈곤을 감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현장과 온라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헌정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항상 잘 살펴봐주시고 제 정책과 주장을 좋게 평가해주셨기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장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뜻을 잘 살피 저 역시 파주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파주 갑 국회의원 윤 후 덕

이종명 국회의원

2019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상인
“2019 국정감사 국민복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선정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천여 명이 넘는 국민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21년 전통의 이 상이야 말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 처음 등원하며 가슴에 새긴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4년간 국방위원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국가와 국민만을 보며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찾고,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군의 정신전력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의 문제점도 꼼꼼히 살펴, 국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
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보훈의 문제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습
니다.

이번 수상이 이러한 활동과 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상을 주신 NGO 모니터단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써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북 충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심에 대해 매우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익증진과 법치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주시는 전국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의 1,000여명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반에 관한 총체적 실패와 무능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할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민생파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실험적·이념적 정책실패로 초래한 경제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예산심사, 법안발의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제시한 대안들이 모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야 정쟁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뜻 깊은 상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행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국회의원

2019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이 훈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입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NGO 모니터단을 운영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공동사무국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숭고한 뜻에 부합하는 국정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개선토록 하는 일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마다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중소기업, 산업, 자원과 에너지 등 국가 경제의 기초와 물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관련 분야의 감사를 적극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정부의 국정운동을 감시하지만,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본분에 충실한지 여부는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감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의 노력을 NGO모니터단에서 높이 평가해주시고, 오늘 의 수상이라는 영광까지 안겨주신 점에 그래서 더욱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국정감사 기간마다 NGO모니터단에서 올바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주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제원 국회의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19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제원(부산 사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시민정신의 공공성을 대의적으로 구현하는데 重役하여, 명실상부 최고의 역사와 공신력을 두루 갖춘 국정감사 평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저를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신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를 함께 완주하여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국회의 大尾를 장식하며 회기內 4년 연속이라는 점에서 마음에 올림이 한없이 크게 와 닿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크고 준엄한 뜻을 더 잘 받들어 제대로 일하라는 큰 가르침 의정활동의 소중한 방향키로 삼아 全力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치른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헌정질서 수호 및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문제인 정권 집권 3년차 법치운용 실태와 국정운영 상황을 총괄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결과가 국민들께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며 탄생한 촛불정권이, 편향된 인사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들로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위선과 기만에 대해 실증적 사례를 발굴해 낸 점, 괄목할만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직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19년도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특히 올해 수상으로 20대 국회 4년 연속으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더더욱 기쁨이 큼니다.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야가 극심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과연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국정방향을 점검·시정하는 국정감사의 제기능을 다 하였는지는 심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법무부 소관인 교정, 출입국관리, 범죄예방과 법원, 감사원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감사에 주력하였기에 올해에도 국리민복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으로 지평하며, 앞으로도 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 봅니다.

그동안 법무부 업무 중에서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등 여러 업무는 검찰업무에 비하여 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의 시야 밖에 무관심의 영역에 머무르며 해당 제도와 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통합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화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광양·곡성·구례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기해년(己亥年)을 갈무리하며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온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국리민복상 시상식과 국정감사 평가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살피신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쟁국감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과 치안, 소방안전 분야의 정책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을 주문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데 의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적을 위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소멸시대, 지방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고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속적인 보전을 촉구했고, 경찰의 부실한 ‘온라인 주민번호(DI)’ 관리 실태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DI 조회시 기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제천화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 및 소방서장 등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의 수상자 선정은 지금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등 약자가 보호받고 정직한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선정에 애쓰신 법률소비자 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의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정진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발생했던 일들보다, 최근 3여년간 일어난 일들이 더욱 엄중하고 위태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변국과 동맹국과의 유래 없는 외교갈등과 북한의 핵위협은 대한민국의 70년 공든 탑을 뒤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전략도 대책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북핵 인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를 최악의 경제난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익은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를 상대로, 당연히 지적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상패 역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정진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때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이 매우 뜻 깊게 다가옵니다.

2016년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발을 디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광스럽게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뻐했는데,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하나의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국민들께서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납부해주신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매번 국정감사를 위해 잠을 잊어가며 수고했던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이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인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모니터 해 가면서 수고해 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과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 2019년도 국정감사 국민복합 (우수국감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전국의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으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며 그동안 지적되었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국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교육 방향성에 대한 담론 제시 ▲고질적인 사학 법인 운영 문제 ▲교육계의 사각지대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를 기조로 하여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교육계 화두가 된 '공정성'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위주 정시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총장, 시도 교육청 교육감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종신제'로 악용되고 있는 사립대 총장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총장의 경우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인으로 대학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내어 교육부가 대학 평가 등에 해당 내용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를 환기하여 법인별 재정진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여 고질적인 사학 법인의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강사 정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예체능계 강사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로 전환대출 기회 마련을 촉구하여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관 제도의 한계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계의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여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하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교육부가 주체가 된 미래교육의 청사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학생들의 질 높은 학교 생활을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미흡한 운영 현황을 지적하였으며,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점점 현황을 살펴 단속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비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교육위 위원으로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한 국정감사였는데 이렇게 우수의원이라는 결실까지 맺게 되어 대단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감 기간 내내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고 많으셨던 NGO모니터단 여러분과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개선되고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 드림

주광덕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바른 정치, 正義

국회의원 주광덕(자유한국당, 남양주 병)

안녕하십니까. 주광덕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의 수상의원으로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70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수상은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국민의 편에서 국정에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우리 곁에 여전히 만연한 불공정'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각종 의혹들을 두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그 불공정함을 바로잡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공자가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표현했듯이 바른 정치,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항상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참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상은 비단 저 개인을 칭찬하는 상이 아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염원하는 분들의 뜻이 모인 공동의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자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격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최경환 국회의원

**<2019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국리민복상) 시상식>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하여**

**국회의원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광주 북구을 최경환 국회의원입니다.

의정감시활동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국회의원이라면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NGO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국감기간동안 모니터하느라 고생하신 모니터단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밤낮없이 국감준비에 힘써준 우리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리며, 국감 내용을 제보해주신 많은 분들과 자료수집에 도움주신 소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있는 지방소외와 홀대로 인한 지역불균형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감을 통해 문화·예술·체육·콘텐츠분야 전반에 걸친 심각한 지방소외의 현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콘텐츠와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되어 지방의 문화예술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제도를 일정비율 지방에 배정하거나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직접 지원·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냉정히 인식하고 제도개선과 재정배분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직접 전하지 못한 대한민국 곳곳의 문제점들을 정부를 향해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는 전달자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해결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뜻하는 국리민복이라는 말처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과 열악한 지방을 제대로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만큼,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주장에 그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당부와 격려로 알고,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평가하며 애써주신 현장 모니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감시를 통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추 경 호

박명재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박명재

안녕하십니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명재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의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21년 전통을 가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 국정감사’라고 할 정도로 조국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국감·정책국감을 목표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국민의 아픔을 국민의 목소리로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추진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완전 폐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시다만,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 수상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국회의원

민생에 힘써야 한다는 무거운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군

안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자 전북
도당 위원장인 안호영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270여 개의 시민·사
회단체가 함께하고 그만큼의 공신력과 권위를 가진 상이라서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무척이나 받고 싶었던 상 중 하나였는데요. 그동안 받지
못하다가 20대 국회 끝자락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아 그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2019년도는 유난히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멈춰있던 시간이 많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국회가 멈춰있던 시간에도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진행하
였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국정감사는 뒤늦게나마 진행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과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토교통위에의 민생현안 과제를 짚
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지
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 통합문제, 항공근로자 및 철도 근로자의 처우개선, 플랫폼 사업
과 택시와의 상생 방안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
선에 노력 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남아 있는 민

생법안과 국민이 원하고 우리가 이뤄내야 할 처리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은 20대 의정활동에서 국민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국민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국회의원 안호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의원

2019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소감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읍, 국토교통위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은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날카로운 시선과 높은 관심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시고 고견을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양가상한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호남선·전라선 KTX오송역 우회로 운임료 상승문제, KTX전라선 수서발 운행 문제 등 등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적과 비판보다 명확한 근거자료와 확실한 논리, 현실에 맞는 대안제시를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20일의 국정감사에 그치지 않고 365일 '상시국감'의 자세로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미비점은 정책과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로갑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올해에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느라 다른 해 만큼 국정감사에 매진하지 못했지만 남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하여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의를 받드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 하는 정책,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리민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국민여러분과 구로구민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상임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의 국정감사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시작된 주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노동현안으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서민경제는 파폐해졌습니다.

더욱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엄습과 쓰레기 대란, 붉은 수돗물 사태 등 각종 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각종 현안들 속에서 저는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감한 환경문제일수록 더 신중했고, 첨예한 노동문제일수록 더 논의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였고, 현장을 찾아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에 아울러 여야 할 것 없이 환노위원 한분 한분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올해 환노위 국감도 단 한 번의 파행없이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택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주신 성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20대국회도 5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의 값진 수상을 계기로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환경과 노동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빡빡하게 진행된 국감일정 내내 함께 호흡해주시고, 지난 20여 년 간 변함없이 국정감사全过程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계신 NGO모니터단 한분 한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민병두 국회의원

<2019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소감>

2019년 12월 27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두(서울 동대문구 을)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국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좋은 성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주장했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기자시절 ‘국정감사의 감사’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를 통한 감시는 더 투명한 국회, 더 풍부한 국정감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단체의 국회 모니터링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 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진행된 20여일 동안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신 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같이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진중한 자세로 기록하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정치일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여러분께서 인정해주시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라고 격려와 신뢰의 의미를 담아 이 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니터단을 비롯한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연말되시길 바랍니다.

전혜숙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전 혜 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과 서울 광진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광진구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수행을 높이 평가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정쟁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민대표 기관입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은 국회의 책무이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기대와 지지에 부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여야 공방으로 인해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아직도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됩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